

문화광장



김 정 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영화의 남녀 주인공을 hero, heroine이라고도 부른다. 세계와 자연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고대로부터 인간은 신화와 민담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신화와 민담에서 우리는 영웅서사의 공통점을 뽑아냈다. 영화 속 주인공 즉 영웅의 여정은 관객이 같이 하는 일종의 여행이다. 영웅은 우선 보통의 세상 속에서 관객과 만난다. 관객은 영웅의 야망과 한계를 알아가며 그와 동일시하게 된다. 이후 영웅은 탐색의 여행에 오르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모험으로 향

영웅서사와 우리네 삶

하는 소명을 받는다. 그러나 영웅은 망설임과 공포를 드러내면서 소명을 거부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멘토를 만나 경험과 지혜의 도움을 받고 마침내 모험을 받아들여 특별한 세상으로 들어선다. 이러한 과정이 관문의 통과다. 영웅이 맞이하는 특별한 세상에는 영웅을 시험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영웅을 도와주는 자와 방해하는 자가 존재한다. 영웅은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앞길을 방해하는 죽음의 세력과 싸울 준비를 하고, 공포와 맞서 죽음을 맞본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영웅은 다시 태어나 공포와 죽음을 극복한 것에 대한 보상을 만끽하게 되고, 모험을 끝낸 뒤 귀환하려 하는 찰나 마지막 도전을 받는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관문에서 피곤하고 지친 영웅의 영혼은 정화되

고 속죄와 변신을 겪는다.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시험이다. 시험을 치른 후 마침내 영웅은 귀환해 자신이 속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자신의 모험을 후세에게 들려준다. 비록 영웅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수시로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겪는 과정 중의 하나가 대학입시이며 이 관문을 통과해 마침내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인생에서 일종의 유예기간인 20대 초반을 보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자식들은 방향하며 자아와 세상을 탐색 후 미래를 준비한다. 대학입시라는 관문은 나중에 보면 인생의 다양한 시련에 비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입시를 겪는

수험생에게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도전이다. 우리나라 남자들에게는 군대가 하나의 도전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전의 연속 속에서 각 단계에서 스승 혹은 조력자를 만난다면 커다란 행운이고, 인생의 멘토를 찾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이러한 여정을 끝마치게 되는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도 살만했다고 긍정의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영화에는 반지의 제왕이나 마블 히어로물처럼 영웅서사가 명백한 영화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영화에서처럼 영웅, 슈퍼맨, 초인의 등장을 갈망만 한다면, 우리 평범한 필부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그 여정에서 우리는 영웅이다.

사설

오락가락 정책 결정에 행정 불신 자초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는 위성곤 지사의 6·3지방선거 당시 공약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추진하려던 상시 배출제 시범운영이 무산됐다. 사실상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 공약이 무위로 끝났다. 당초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24시간 상시 배출 시범지역을 2~3개월 동안 운영해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내년 요일별 배출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지역에서 재활용품 상시 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고 양 행정시에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해 운영 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시 26개 읍면동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서귀포시 역시 17개 읍면동 중 한

곳만 참여 의향을 보였다. 상시 배출제 전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했다. 전환 시 늘어나는 쓰레기를 감당하기 어렵고 업무 부담 가중과 민원 발생 우려도 높다는 게 이유다. 결국 제주도는 시범 운영을 접기로 결정했다. 대신 요일별 배출제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확보한 용역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도 전에 철회되면서 사전 준비 부족과 정책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행정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자초한 결과다. 한번 무너진 행정 신뢰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들다.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메달 너머의 도전, 제주가 응답해야 한다

제주에서 지난 11일부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선수들이 찾아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경기장·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지도인력 확보 등 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도민들의 응원도 경기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승리한 선수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에게 격려를 보내야 한다. 그들이 흘린 땀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소중한 도전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체전은 누가 더 많은 메달을 따느냐만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모든 선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그 박수가 말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애인들이 보다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회를 개최한 제주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경기장·편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지도인력 확보 등 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도민들의 응원도 경기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승리한 선수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에게 격려를 보내야 한다. 그들이 흘린 땀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소중한 도전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체전은 누가 더 많은 메달을 따느냐만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모든 선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그 박수가 말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애인들이 보다 쉽게 체육시설을

열린마당

풍요로운 한가위 안전이 완성하는 행복한 제주

김 승 탈
제주소방서 오라119안전센터장 소방경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과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연휴에는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추석 연휴 제주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몰리고 도민의 이동량도 급증한다. 명절 음식 준비로 가스·전기 사용이 늘고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밀집하면서 화재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명절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다. 음식 조리 중 자리를 비우거나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연물을 두

는 작은 실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 밸브와 미사용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각 가정의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온 가족이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화재 시 대피요령을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성묘와 별초 작업 시에도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예초기 작업 때 보호안경과 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벌 쏘임과 뱀 물림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휴대폰 통신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숙박시설과 전통시장 등에서는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가정과 이웃을 한 번 더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 도민 모두가 안전한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공공기관 이전·G20유치 총력전

위 지사 주간정책회의서 주문

어린이집 안전실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과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 위성곤 지사는 14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활용 행정 혁신, 민선9기 경제성장 전략, 기본사회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 부서가 함께 뛰는 총력 대응을 주문. 위 지사는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제주에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한다면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며 제주 유치의 의미를 강조.

오소범기자

○…제주시가 올바른 어린이집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8일까지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 이에 지역 내 어린이집(전체 276개소)을 대상으로 자체점검표를 활용해 CCTV 설치기준 의무 이행, CCTV 내부관리계획 수립, 영상정보 대장 관리, 영상정보의 정상 여부 및 위·변조 방지 상태 등을 자체·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 시 관계자는 “특정 날짜와 특정 반을 대상으로 CCTV를 열람해 아동학대 징후와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교직원 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 의무자 교육 이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언급.

백금탁기자

흡수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

한라에스엔에프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나림통상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6년 9월 10일 개최된 “갑”과 “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흡수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이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본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6년 9월 15일

(갑) 한라에스엔에프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남6길 42, 3층 (도남동)
대표이사 이 병 철

(을) 나림통상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남6길 42 (도남동)
대표이사 이 수 진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 주 개 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산담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혈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 나 장 의 사
616-08-85402